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2020년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목표

출처 : the Directorate of Animal Health of Indonesian Ministry of Agriculture

인도네시아 농무부의 동물보건국장인 Dr. Pudjiatmoko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0년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리적, 질병특성적, 역학적 위험분석을 통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만들었으며 단계별로 시행할것이라 한다. Dr. Pudjiatmoko는 2011년까지 지난 4년간 AI발생이 없었던 인도네시아 동부에 위치한 Maluku, Papua, NTT, NTB와 Gorontalo을 AI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지역예찰을 강화하고 이후 Kalimantan 모든 지역으로 목표를 확대 할 예정이다. Sulawesi섬에 있는 South Sulawesi지역은 2017년, Lampung와 Sumatera섬에 있는 North Sumatera지역은 2018년 AI청정지역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AI발생위험 및 빈도가 가장 높았던 Java의 모든 지역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AI방지전략이 필요하기에 2020년까지 목표로 한다고 Dr. Pudjiatmoko는 밝혔다.

### 인도네시아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목표 로드맵

- 2011 Maluku, Papua, NTT, NTB, Gorontalo
- 2012 Kalimantan Island
- 2013 Bali Island
- 2014 Bangka Belitung archipelago and Riau archipelago
- 2015 Sulawesi Island, except the province of South Sulawesi
- 2016 Sumatera Island, except the province of Lampung and North Sumatera
- 2017 The province of South Sulawesi (Sulawesi Island is free)
- 2018 The province of Lampung and North Sumatera (Sumatera Island is free)
- 2020 All provinces in Java Island (all areas in Indonesia are free)

[일본]

## 日, 미야자키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을 겨울 19번째

출처 : 연합뉴스

일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에현에 이어 미야자키현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며 일본 농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미야자키현은 17일 노베오카시의 양계장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으로 의심되는 닭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겨울 일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인된 것은 미야자키현 내에서만 12번째이며 일본 전국적으로는 19번째이다.

미야자키현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양계장의 닭 약 7만5,000마리와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일 양계장의 약 1만2,500마리의 살처분에 착수했으며 발생농가로 부터 10km 이내의 닭 및 계란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미에현은 17일 전국에서 18번째로 감염이 확인된 기호초 양계장의 닭 약 6만5,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양계장으로부터 반경 10km의 이동제한 구역내에 있는 6곳의 농가에 대한 감염유무 확인 검사를 실시했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

# AI발병 닭·오리 4,000마리 살처분

출처 : 아시아경제

인도 국영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닭과 오리 4,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번 AI사태로 닭·오리 식품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경우 최근 주춤했던 인도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인도 정부당국이 이에 대해 발빠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인도 북동부 트리푸라 주(州)의 국영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 닭과 오리 4,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AI가 트리푸라의 도시인 아가르탈라 국영농장에서 발생했다”면서 “AI확산을 막기 위해 4,000마리 이외에도 반경 3km내 가금류를 추가로 도살 처분키로 하고 6km내 농장에 대해선 판매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리푸라 주 동물연구부의 쥘티르모이 차크라바르티 공동국장은 “이 농장에 대한 1차 검사에서 ‘H5’형인 AI 양성반응이 나와 인간에게 전염 가능한 ‘고병원성 AI(H5N1형)’ 여부를 가리려고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라면서 “아직 인간에게 감염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인도에 처음으로 AI가 보고된 이후, 2008년 대규모 AI가 발생, 수백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2010년에도 소규모 발병사례가 있다.

인도연방정부는 트리푸라 주 일대에서 가금류와 달걀의 이동 및 판매를 막는 한편, 10km에 있는 방글라데시로부터 가금류와 달걀 수입도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AI확산으로 인도 내 닭·오리식품의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경우 주춤했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가금류 수입조치를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리키타팔 인도가금류연방 회계담당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눈에 띄게 경제가 타격을 입진 않았다”면서 “트리푸라는 인도 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닭·오리를 수입하는 한편, AI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닭·오리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닭·오리·달걀 판매가격만큼의 손실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